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황색 연구

김주경* · 금기숙

우송정보대학 의상학과 시간강사* · 홍익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색채는 우리 삶의 건강과 미적 조화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색의 '문화시대'로 이해되는 21세기에는 개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전략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21세기의 소프트웨어인 색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색명이 정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색을 적용하는 산업 현장에서 조차 보편화된 도구와 색체계가 일관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색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패션 디자인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색채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색채 중 삼원색의 하나이며 시인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황색을 연구의 주제로 삼아 정의하고 실제 사용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패션 및 여러 생활 분야에서 황색의 활용방법 및 상징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색의 사용범위와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

황색에 관한 연구로서 황색의 유래와 정의, 표색계에서 황색의 위치, 지역, 민족, 종교 등 특수한 상황에서 황색이 가지는 상징성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였다. 또한 황색의 염료, 안료의 종류와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황색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으며, 자연, 예술, 디자인, 복식에 나타난 황색의 일반적인 활용 사례로 분석하였다. 자연에 나타난 황색은 먼적대비와 보색대비가 많이 나타났다. 예술에 나타난 황색의 특징들은 모네, 고흐, 피카소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모네는 색상 대비와 명도차를 이용한 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반 고흐는 해바라기를 통해 유사색 배색을

동적이고 기운찬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피카소의 작품은 강한 색상과 명도 대비를 통해 형태를 강조한다. 영화에 나타난 황색은 희망, 황제의 권위, 저물어 가는 인생, 혁명과 정열을 상징하였다. 복식에서는 황색이 장식의 효과로 부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1960년 이후 히피풍이나 에콜로지풍의 등장으로 황색이 많이 나타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황색의 연구를 위해 2000년 S/S 시즌에서 2002년 F/W 시즌 밀라노, 파리, 뉴욕, 런던 컬렉션을 수집, 분석하였다. 황색의 사용 빈도는 2001년 F/W 시즌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황색의 사용 빈도가 높은 아이템은 원피스, 재킷으로 나타나며 그 순위는 시즌별로 아이템 간의 변동이 있었다. 색상 배색 분포도에서는 황색과 검정색의 배색 그리고 황색과 흰색의 배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황색 배색의 문양을 살펴보면 솔리드가 가장 많았고 문양으로 추상무늬, 줄무늬, 플라워 패턴 순으로 나타나며 이처럼 황색의 특성을 분석하여 황색 패션의 조형성을 파악하였다. 현대미에서의 황색은 최대한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으며 톤온톤 배색, 톤인톤 배색이 많이 쓰였다. 관능미에 보이는 황색의 배색은 시즌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이트와의 배색이 많이 보이며 꽃무늬, 도트무늬, 추상무늬를 사용하여 여성미를 보였다. 활동미에서는 황색과 녹색, 황색과 파랑의 강조 효과에 의한 배색이 많이 나타났다. 이국미에서는 황색과 브라운 톤의 배색, 황색과 빨강, 파랑, 녹색의 원색 배색이 많았다. 전위미에서는 구성적인 디자인이 많이 보여지며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황색의 조형미는 현대미, 관능미, 활동미, 이국미, 전위미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